러시아 사할린에 '조국의 숨결' 새기리…

사할린에 잠든 고혼을 위로하다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 무원 스님(부산 삼광사 주지)



"사할린에서 혹독한 강제 노역으로 고된 삶을 보내고 고향을 향한 그리움에 망향가를 불렀을 그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역사의 굴레 속에서 돌아가신 후에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사할린 타국에 묻힌 희생자들과 후손들을 지금이라도 돌아봐야 합니다."

부산 천태종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이 오는 8월 27~30일 러시아 사할린을 방문한다. 현재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로 활동 중인 스님은 이번 방문일 동안 추모비 건립 1주년을 맞아 러시아 사할린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제1공동묘역에서 추도식을 진행한다. 이번 추도식에는 부산진구사암연합회 스님 30여명이 함께 동참해 사할린에서 잠든 유주무주 고혼과 그 후손들을 위로한다.

무원 스님은 "작년에 추모비가 세워졌다. 희생자들의 공원묘지에 개인 비석은 있지만 공동 추모비가 없었다. 너무나 안타까워 그분들을 위한 공동 추모비를 세우고, 매년 추도의식을 가질 것을 서원했었다. 이번이 그 첫 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무원 스님은 불사 중인 추모관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돌아보고 격려할 계획이다. 추모관은 현재 기초 공사를 다지고 기둥을 세우고 있다. 총 2층 규모로 1층은 동포와 후손을 위한 쉼터로, 2층은 위패를 모신 기념관으로 활용된다.

마지막 중요 일정은 러시아 브이코프 탄광 지역을 방문해 후손들의 고충을 듣는 시간을 가진다. 이 지역은 일제강점기에 수많은 우리 동포들이 강제로 끌려가 혹독한 강제 노역을 해야 했던 '눈물의 땅'이다. 브이코프 탄광은 1938년 전쟁 막바지 국가총동원령에 의해 가장 극심한 강제징용이 이루어졌던 곳으로 알려진다.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과 부산진구사암연합회는 8월 27~30일 일제 때 강제 징용돼 돌아오지 못한 한인 동포와 후손들을 위한 추모식을 연다. 사진은 작년 추모비를 세우고 진행된 추모재 모습.

8월 27~30일 사할린 방문
지난해 공동 추모비 건립
1주년 기념해 추도식 진행
2층 규모 추모관도 불사 중

무원 스님이 사할린 동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현덕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회장과의 인연 때문이었다.

무원 스님은 "현 회장과의 만남으로 징용자들의 괴로운 삶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현 회장은 3·4세 후대들의 역사의식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다"며 "한민족의 뿌리를 잊지 않도록 도와야겠단 생각을 갖자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스님은 사할린 동포 자녀 한인 청소년 20여명을 초대해 '사할린 동포와 함께 하는 역사 기행' 활동을 지원했다. 한인 동포 청소년들은 8월 2~6일 동안 '삼광사 템플스테이'를 진행하고 유적지를 탐방해 한국 문화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스님은 "자신들의 뿌리를 모르고 사는 이들에게 고국 문화를 일깨워주기 위한 자리였다. 역사와 한글말을 잊지 않도록 배려했다. 이번 일을 통해 한민족의 긍지에서 살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스님은 사할린 뿐 아니라 일본에 강제로 끌려간 희생 영가를 함께 모아 우리나라에 봉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잊혀선 안 된다. 아직도 찾지 못한 유해가 있을 뿐 아니라 조국에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그분들을 모셔와 남북 협의 하에 DMZ평화공원에 모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이는 남북의 평화를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며 조상들도 바라는 염원일 것이다"고 말했다.

일제 강점기에 사할린으로 강제징용 된 한인의 수는 4만3000명으로 집계된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강제노역 등으로 사망하거나, 1945년 일본의 패전 이후 사할린에서 생을 마감했다.

하성미 기자

초기불전연구원, 아비담마 길라잡이 강좌

8월 30일 개강… 11월 1일까지

초기불전연구원(원장 대림)은 근본도량인 김해 장유 보리원에서 '아비담마 길라잡이' 강좌를 실시한다. 지난해 4기에 이어 5기를 맞은 이 강좌를 통해 초기불교연구원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 아비담마를 가르친다.

강의는 8월 30일~11월 1일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2시간 동안 진행된다. 교재는 〈아비담마 길라잡이(상/하)〉이며 강사는 각묵 스님이 나선다. 장소는 경남 김해시 관동로 27번 길 5-79 (관동동) 보리원 내 초기불전연구원이다. 수강료는 10만원.

강의 내용은 89가지 마음 심소와 마음의 여러 측면을 다시 복습한다. 이어 이를 토대로 △28가지 물질(6장) △법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분류(7장) △12연기와 24가지 조건의 가르침(8장) △사마타와 위빳사나를 중심으로 한 초기불교의 수행(9장) 등을 살펴본다.

초기불전연구원은 "부처님께서는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라고 말씀하셨다. 또 '그대들은 내 법의 상속자가 돼야지 재물의 상속자가 되지 마라'고 고구정녕하게 말씀하셨다"며 "법에 대해서 대법(對法)으로 직역되는 아비담마(Abhidhamma)를 공부하는 것은 부처님이 계시지 않은 이 시대에 부처님의 진신을 친견하는 가장 성스러운 일"이라며 많은 동참을 독려했다. (055) 321-8579

하성미 기자

부산불교복지협, 지역사회 의료복지 향상 도모

8월 12일 호암한의원·서면 신세계 안과와 MOU 체결

(사)부산광역시불교복지협의회(회장 정여, 이하 부불복지협의회)가 의료계 복지 향상을 위해 나선다.

부불복지협의회는 8월 12일 부산불교회관 7층에서 호암한의원(원장 정중) 및 서면신세계안과(원장 허준)와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호암한의원과 서면신세계안과는 부불복협의회의 지역사회 의료복지와 국내외 연계사업에 함께 동참한다.

회장 정여 스님은 "이번 협약으로 소외된 지역주민 및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여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한걸음 벗어나 평안의 세계로 이끌어 주길 바란다"며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빈곤 해외국가에 지속적으로 구호활동을 펼쳐 온 세계가 부처님의 품안에서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정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호암한의원 정중 원장은 소외된 지역주민을 위해 10년 이상 한방 의료서비스 제공과 한약재 무료 보시 등의 보살행을 실천해왔고 2014년 부불복지협의회에서 수여하는 부산광역시장상을 받았다.



(사)부산광역시불교복지협의회는 의료계 복지 향상을 위해 8월 12일 부산불교회관 7층에서 호암한의원 및 서면신세계안과와 MOU를 체결했다.

서면신세계안과 허준 원장은 부산불교연합신도회 이사로 활동하며 지역주민을 위한 후원금 전달과 어르신들의 무료진료 및 수술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부불복지협의회는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국내 지원 및 봉사 활동을 하는 한편, 해외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캄보디아 클랑하이 초등학교 및 로터스월드 지역 아동센터 지원사업에 이어, 오는 10월엔 베트남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하고 후원할 예정이다.

하성미 기자

스리랑카서 부산 금강사로 '진신사리' 전해져

8월 11일 이운법회, 스리랑카 前 대통령 참석

부산 금강사(주지 혜성)가 부처님 진신사리 이운법회를 금강사 대웅전 앞에서 봉행했다.

8월 11일 금강사로 이운된 진신사리는 부처님의 진신사리 1과와 부처님 제자의 나한사리 2과로, 스리랑카 콜롬보 스위와리라사라마야 사찰에 보존돼 왔다.

'차의 성지'로 유명한 금강사는 오랫동안 스리랑카와 홍차로 교류하며 관계를 유지했다. 이번 진신사리는 스리랑카 사찰과 교류하며 민간 외교 분야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달받았다.

이운식에는 마힌다 라자팍세 스리랑카 前 대통령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으며, 와티나파하 수마난다 테로 주지 스님과 스리랑카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했다.

주지 혜성 스님은 앞으로도 한국과 스리랑카 불교계의 활발한 교류를 이끌어 갈 것을 약속했다. 혜성 스님은 "홍차 생산지인 스리랑카와 금강사 차인들과의 인연을 시작으로 이렇게 기쁜 결과를 얻게 됐다"며 "앞으로 돈독한 관계를 갖고 서로 왕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이번 진신사리는 스리랑카 아누라드 브라지역에 위치한 미리사베터아 사찰의 옛 보탑사에서 나온 소중한 보물"이라며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셔 한국 불자들에게도 큰 기쁨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기뻐했다.



8월 11일 부산 금강사서 진행된 부처님 진신사리 이운법회서 마힌다 라자팍세 스리랑카 前 대통령이 진신사리를 주지 혜성 스님에게 전달하고 있다.

라자팍세 前 대통령은 한국 불교와의 인연을 언급하며 국내 스리랑카 노동자를 위해 헌신하는 스님들께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금강사는 앞으로 여러 행사를 통해 불자들이 직접 진신사리를 친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성미 기자

世界佛教 法王廳

대한불교 나라사랑 연합협의회

세계평화를 기원하고 지구촌 빈민촌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위한 지구촌 세계불교 최고의 지도자와 한국의 400여 종단이 하나가 되고자 하는 불교 지도자들의 법석

INTERNATIONAL BUDDHISM LEADERS ASSOCIATION

[世界佛教 指導者 合同 金剛戒壇 대법회]

2016년 10월 5일 수요일 / 국회의원 회관 / 오후 1시 30분

전계대화상 :
世界佛教徒의 法王 –
우 꾸마라 사야도
(미얀마 연방승가회 회장)



Dr. Bhaddanta Kumarabhivamsa
Bhamo Sayadaw
Agga Maha Saddhammajotika
Agga Maha Pandita
Chairman of the State Sangha Maha
Nayaka Committee

■ 교수아사리 : 살아있는 팔만대장경의 화신 제13대 에인다 빠라 삼장법사. 연방승가회 부회장 사야도
■ 갈마아사리 : 법왕청 법왕 보좌 비서실장 – 목탁 대승정 | 짜익티오성 사야도

한국본부 전계대화상 | 교수아사리 | 갈마아사리

三師 108證明團합동 建幢(건당)의식 및 품수의식 봉행

400여 종단 한국불교 高僧 및 元老 큰스님!
정중히 공개적으로 추대하여 이 법석에 모시고자 합니다.

석가세존에게 테라와다 불교의 정법을 위촉받은 미얀마 연방승가회 회장

법왕님의 상좌 건당 및 품수 의식. 계첩에 이름을 올릴
3師 108 證明團에 韓國佛教 高僧 元老 큰스님들을 모십니다.

■ 주 최 : 대한불교 나라사랑 연합협의회 / 세계평화기원 대법회 봉행위원단 /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주 관 :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 WORLD BUDDHIST DHARMA-KING CENTRAL GOVERNMENT

승려 60만의 불교나라 미얀마 최고의 큰스님과 부종정 사야도, 경전의 화신 13대 삼장법사,
짜익티오성 사야도와 상원의원 활동과 미얀마 신정부 경제특보이면서 수백억의 재산을 불교에 보시한
보시의 화신 닥터 킨쉐이 박사가 동참하여 성스런 불교의식을 한국에서 봉행합니다.

대한불교 나라사랑 연합협의회
대한불교 108 종정연합회
대한불교 고승 장로단
세계불교 고시위원회
국제붓다봉사단
대한불교 종단 인권위원회
대한불교 종단 총연합 협의회
대한불교 원로 장로단
대한불교 대종사 연합협의회

총괄본부장 : 아까마하 사다함마 저티카 하자 大僧正 목 탁 (법왕청 법왕보좌 비서실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6 신영빌딩 3층 (삼봉로 68) ● 문의 및 접수 : 02)733-5665. 010-3618-6061